



# 석연외

## 특집1. 기획전시

<언젠가는 금강산> 전시안내서  
아는 만큼 보인다

## 특집2. 기증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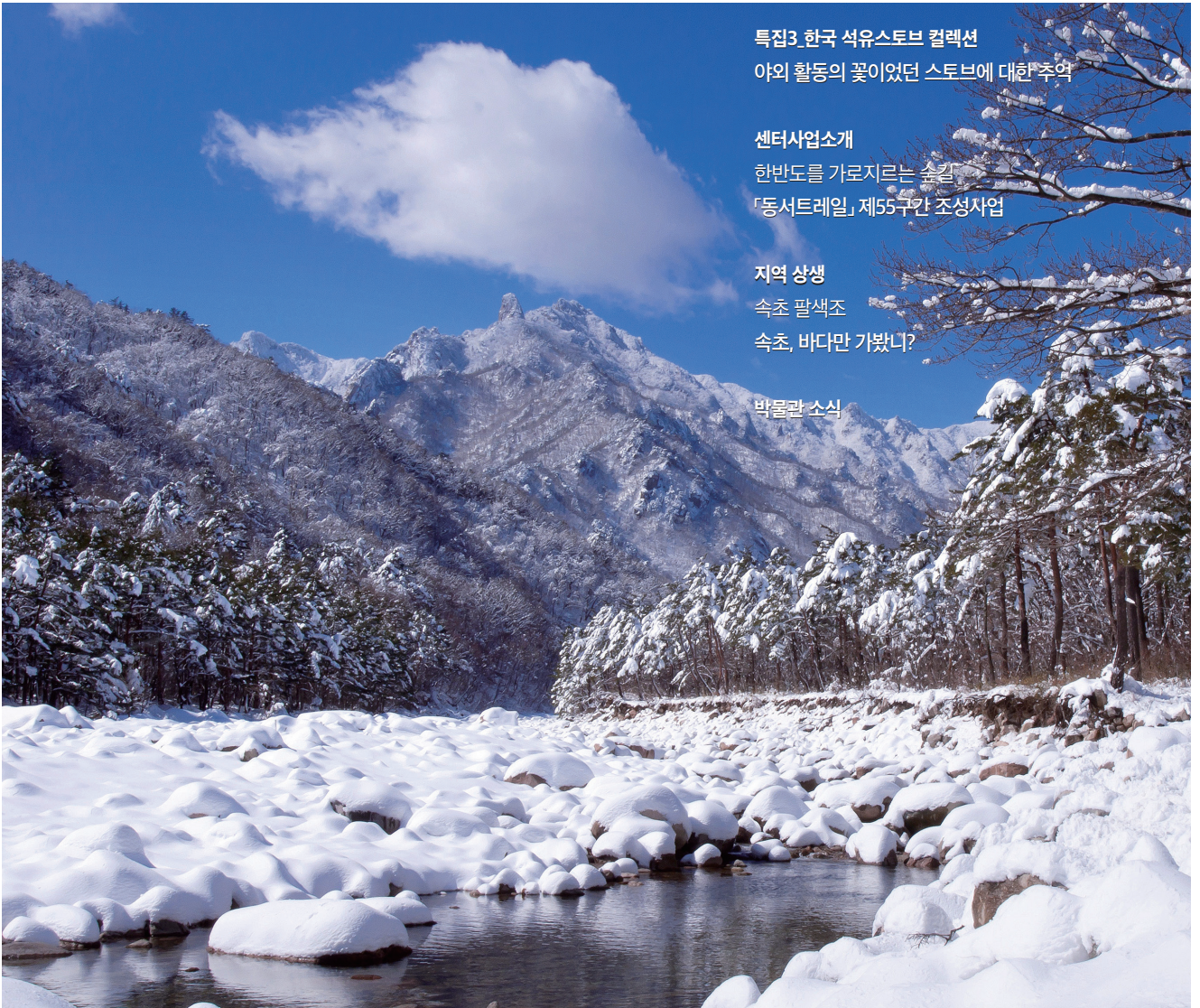
2022 박물관 기증자료  
역사를 다시 만나는 법

특집3. 한국 석유스토브 컬렉션  
야외 활동의 꽃이었던 스토브에 대한 추억

센터사업소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숲길  
「동서트레일」 제55구간 조성사업

지역 상생  
속초 팔색조  
속초, 바다만 가봤다?

박물관 소식



표지 사진 임흥빈 작 '설악산의 설경'  
2013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진공모전 수상작(입선)

제자  
장서령

## 국립산악박물관 소식지 설미

NATIONAL MOUNTAIN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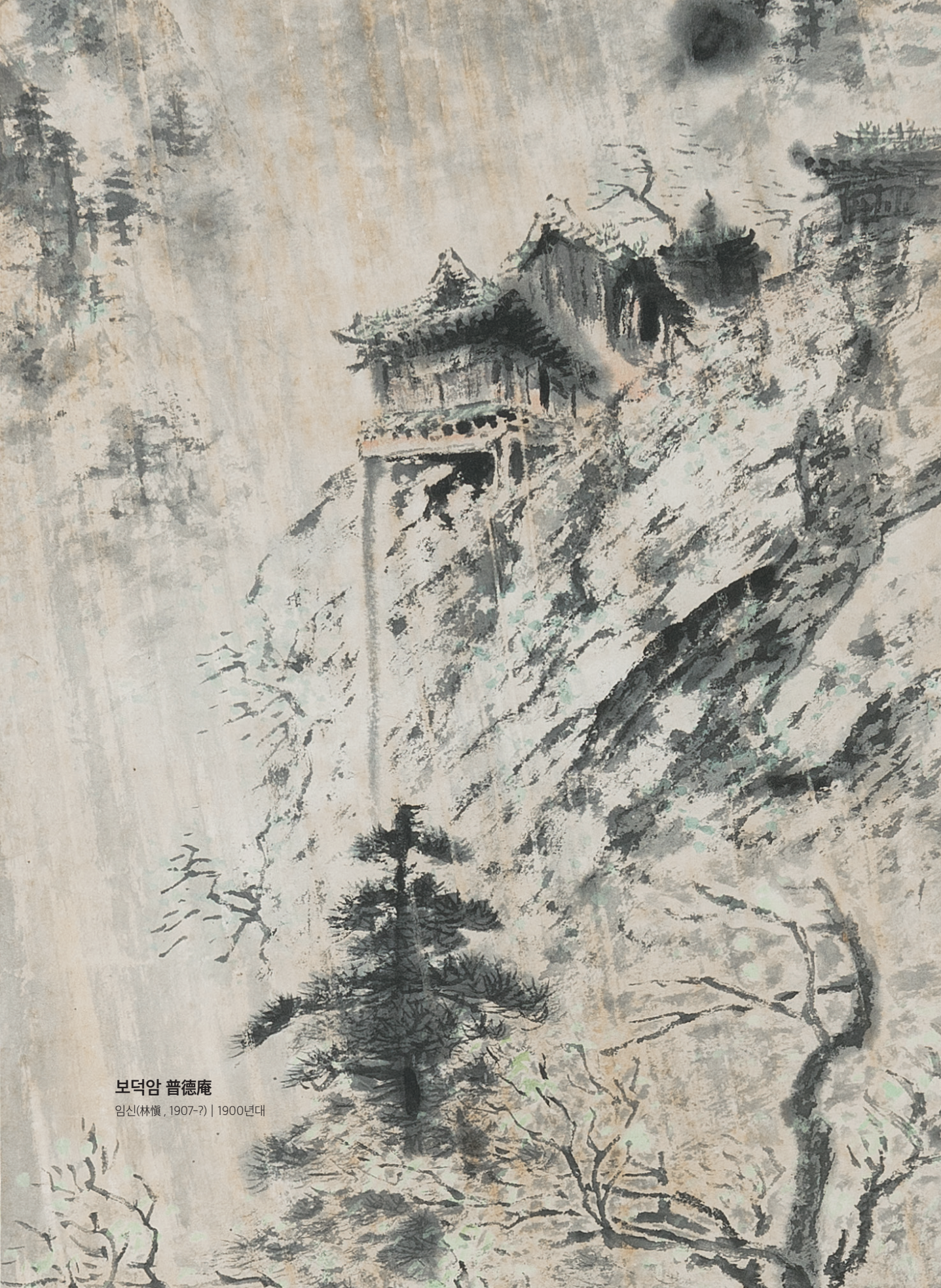
## 2022 Vol. 13

**발행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전범권  
**발행처** 국립산악박물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054(노학동)  
**편집인** 박경이  
**편집기획** 이상민  
**발행일** 2022년 12월 23일  
**전화** 033-637-4450  
**팩스** 033-637-4450  
**홈페이지** <http://nmm.forest.go.kr>  
**디자인 및 제작** 컵앤캡(Cup&Cap)

© 2022 국립산악박물관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국립산악박물관 및 각 저자에 있습니다.





보덕암 普德庵

임신(林愼, 1907-?) | 1900년대



## 목차

발간에 부쳐 3

### 특집1 기획전시

<언젠가는 금강산> 전시안내서  
아는 만큼 보인다 4

### 특집2 기증유물

2022 박물관 기증자료  
역사를 다시 만나는 법 11

### 특집3 한국 석유스토브 컬렉션

야외 활동의 꽃이었던 스토브에 대한 추억 17

### 센터사업소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숲길  
「동서트레일」 제55구간 조성사업 22

### 지역 상생

속초 팔색조  
속초, 바다만 가 봤니? 23

박물관 소식 26





안녕하십니까.

국립산악박물관 소식지 <설피> 13호 발간에 맞춰 인사드립니다.

산악박물관은 상·하반기 <설피>를 통해 소장품 수집 성과 및 다양한 사업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하반기 기획전시 <언젠가는 금강산>과 기증유물 소개, 유물수집 성과 등 박물관 소식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소개,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박물관 소식 등을 담았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3만여 점의 산악문화·역사 자료를 보유하고 현재 누적 관람객 89만 명을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립산악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10년을 향해가는 지금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산행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유일한 고산체험실과 고유한 전시 내용을 인정받아 강원관광재단에서 제정한 강원유니크베뉴 10곳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악박물관에서는 일반 전시와 더불어 시대 변화에 맞추기 위해 찾아가는 전시 및 소장품을 주제별 영상으로 제작하여 센터의 채널을 통해 소개하는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전시 예정인 <언젠가는 금강산>을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하셨으면 합니다. 웅장한 금강산, 아름다운 금강산을 마음 깊이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설피> 13호 발간에 애쓴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 12. 7.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전 범 권



# <언젠가는 금강산> 전시안내서 아는 만큼 보인다

글 박수미 학예사

.....

금강산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벅찬 마음으로 그려져 있는 산이다.

금강산 여행마저 막힌 지금,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진다.

이번 전시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금강산을 다시 환기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다양한 금강산의 모습을 ‘소장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금강산에 대한 ‘등반’과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마음의 금강산을 벅차게 만나보자.





## 1부 : 산수 유람을 떠나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심신수양 등 다양한 이유로 금강산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약간의 돈과 문방구, 와유록臥遊錄 등 필요한 짐과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지도를 챙기고 동료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일반적으로 한양에서 출발하여 단발령을 넘어 내금강으로 들어서는 경로를 이용했고,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하거나 승려가 메는 남너(가마)를 이용하기도 했다. 산속에서는 장안사, 유점사 등 사찰에서 숙박했고 마을에서는 관사나 지인의 집, 조선 후반에는 주막에 머물렀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1부 조선시대는 경남 산청에서 살았던 인물인 월연 이도추의 금강산 여행 경로를 따라가 보았다. 이도추의 저서 『월연집』에 수록된 「동유기행東遊紀行」은 1883년 5월부터 7월까지 동료들과 함께 떠났던 금강산 유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내금강 장안사로 들어가 망군대, 만폭동, 보덕암, 삼일포 등 금강산의 여러 명소를 유람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선비들은 유람 중 적었던 글들을 유산기로, 그림들은 화첩으로 남겼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유산기를 모아서 '와유록臥遊錄'이라고 이름 짓고 돌려 읽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에 금강산 풍경이나 명승지 그림을 걸어놓고 그림 속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승람도와 같은 놀이를 통해 와유臥遊를 즐겼다.



### 수진팔도지도 袖珍八道地圖

조선 | 1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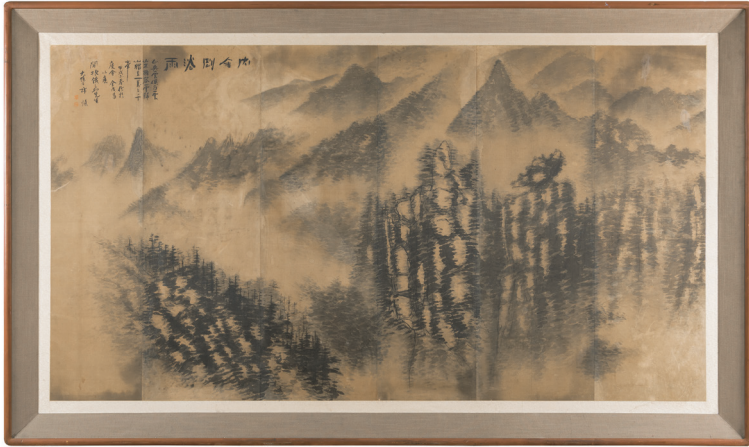
여행 또는 전시상황 등에 사용했던 휴대용 지도이다. 절첩折疊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 양면에 각 도의 지도와 간략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각 군현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동유기행 東遊紀行

20세기 | 31×21cm

월연月淵 이도추李道樞, 1848~1921가 광종석, 박규호, 하용제와 함께 1883년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강산과 해금강 등을 유람하고 쓴 일기체 기행문이다. 59일 동안 2,960리를 걸어서 여행하는 동안 보고 느낀 산수의 아름다움과 암석의 기괴함 등 자연 경관과 특징의 유람처에 얽힌 전설 등을 자세히 기록했다. 눈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면 더욱 즐겁다는 여행관을 피력하고 있다.



### 내금강욕우 內金剛浴雨

임신 | 1934년 | 130×242cm | 비단에 수묵

전북 순창 출신 임신林愼, 1907~?의 작품이다. 임신은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으로부터 그림을 배우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전문 수업을 받은 서양화가이다. 후에 한국화가로 전향하였고 선전에서 크게 활동하여 여러 번 입상하고 이리여고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6.25때 행방불명되었으며, 북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기록이 있다. 내금강욕우는 금강산 명소 중 하나인 망군대 일대를 조망하듯 그렸고 사방이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 사이로 비온 뒤 자욱한 안개가 낀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 보덕암 普德庵

임신 | 1900년대 | 40×3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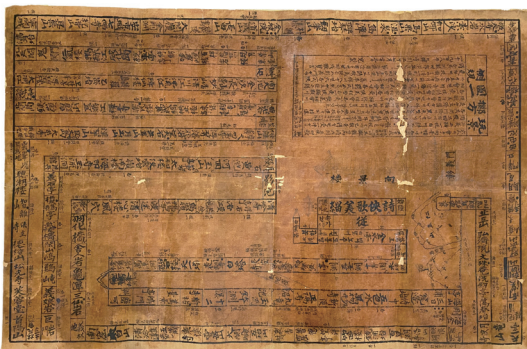
내금강 만폭동 골짜기에 있는 암자이다. 자연동굴인 보덕굴 앞 바위에 의지하여 절벽 중간에 7.3m의 구리기둥 하나로 받쳐 세웠다. 비오는 날의 운치를 먹의 농담과 사선으로 그린 선들로 표현하였다.



### 완경척방도 玩景擲方圖

1908 | 52.5×82.5cm

완경척방도는 총 196곳의 명승지가 일렬로 구성된 놀이판이다. 장안사, 정양사, 신계사, 만경대, 만폭동, 만물초 등 다양한 금강산 명소가 적혀있다.





## 2부 : 기차를 타고 달려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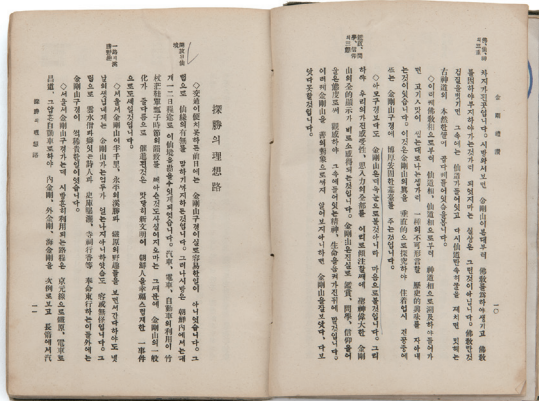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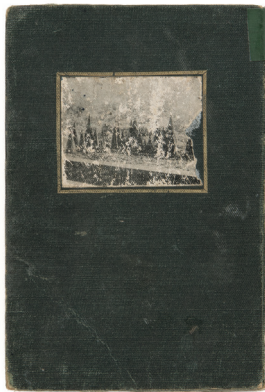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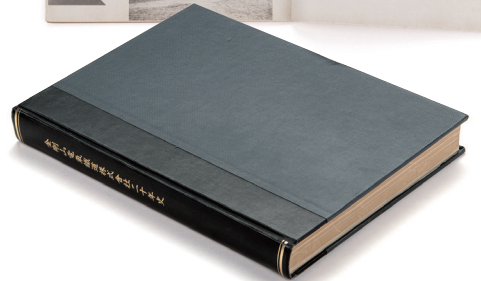
2부는 일제강점기 철도의 발전과 함께 시작된 금강산 여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14년 경원선 개통 이후 금강산 탐승단 모집 광고가 자주 등장했고, 금강산 관광 안내서, 금강산 관련 책 발행과 더불어 호텔과 여관 등이 들어섰다. 1924년 금강산 전기철도 주식회사의 철원-김화 철도 개통으로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당시 잡지, 신문에 연재된 최남선과 이광수 등 작가들의 기행문은 일반 대중에게 금강산 관광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 금강산 전기철도주식회사 20년사 金剛山 電氣鐵道株式會社 廿年史

금강산 전기철도주식회사 발행 | 1939년 | 26×19cm

금강산 전기철도주식회사에서 발행한 20년사 사보이다. 총설, 창립 전후 주요 사업, 초기 건설 과정, 철도 사업 및 시설 총관, 사업 자금, 영업 실적 및 현황, 역대 임원, 회사의 철도 시설 역사, 조직 및 직제, 금강산 현황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회사는 1912년 설립된 조선 최초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사유 철도 회사로, 원활한 금강산 관광을 위해 설립되었다. 1924년 경원선 철원-김화 개통(28.8km)을 시작으로, 1931년 철원-내금강역(116.6km)의 선로를 부설하였다.



### 금강예찬 金剛禮讚

최남선 | 1928년 | 18.8×13cm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1924년 금강산을 여행하고, 시대일보에 연재했던 여행기를 1928년에 「금강예찬」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광수, 최남선과 같은 조선인 작가들의 금강산 여행기는 금강산 관광객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 교통이 편치 못하던 옛날에는 금강산 구경이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연의 있고 없음을 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은 조선 내에서는 대개 하루 이틀 정도로 이 선경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차, 전차, 자동차의 이용이 죽장망해 단표자 시절의 운치를 빼앗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금강산의 일반화가 즐달음치듯 빠르게 된 것은 마땅히 신문명이 조선인을 행복하게 만든 일대 사건으로 여길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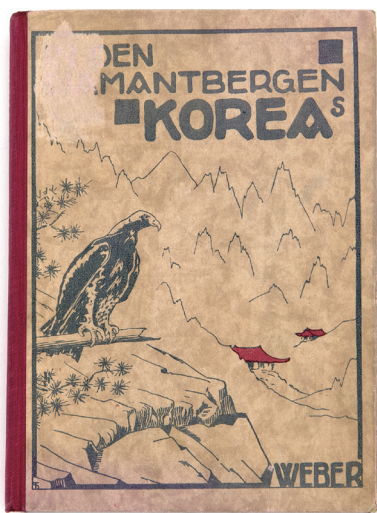
## 조선 금강산 교통대조감도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행 | 1929년 | 26×130cm

조선 금강산 교통대조감도 리플릿이다.

내금강, 외금강, 신금강, 해금강 제승에 대한 개별적 사진과 영문으로 된 관광정보 등 11면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용에는 표지와 조감도를 그린 화가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 1884-1955)의 후기가 실려 있는데, 금강산의 불교적 유래, 전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리플릿에는 일본 소설가 기쿠치 유희(菊池幽芳, 1870-1947)가 1918년 본인의 책에 쓴 내용인 '금강산이 세계적 명산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인용되었다.



## 수도사와 금강산 『In Den Diamantbergen Koreas』

노르베르트 베버 | 1925년 | 22.3×16.5cm

수도사와 금강산은 일기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금강산의 자연 뿐만 아니라 사찰과 승려들의 생활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독일의 성 베네딕도회 소속 수도사인 베버(Norbert Weber, 1870~1956) 신부는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성전(절)을 직접 보고자 1925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 관광길에 올랐다.

6월 2일 장안사 도착

6월 3일 망군대

6월 4일 장안사 주변 산책

6월 5일 보문암(비구니암자), 백화암, 표훈사, 정양사

6월 6일 보덕암, 마하연 표길상, 안문재령, 유점사

6월 7일 유점사

6월 8일 신계사, 삼일포, 해금강

6월 9일 구룡폭포, 온정리 숙소

6월 10일 바라봉, 만물상

6월 11일 비로봉



## 금강산 명소 사진

덕전사진관 발행 | 일제강점기 | 7×10cm

흑백의 금강산 관광 기념 명소 사진이다. 진주담, 망군대, 집선봉, 비로봉, 삼선암, 구룡폭, 총석정, 해금강까지 총 8장의 사진이 들어있다.





## 조선총독부 시정 4주년 금강산 기념엽서 금강산 만물상과 사자봉

조선총독부 발행 | 1914년 | 9×14cm

조선총독부는 1910년이래로 20년까지 매년 시정 기념 관제사진엽서를 발행하였다. 해마다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엽서가 발행되었는데, 식민 통치로 인해 조선이 발전하였다는 주장을 내외에 선전하는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었다. 4주년 기념엽서의 주제는 금강산으로 금강산 만물상과 사자봉의 절경이 표현되어 있다.

1930년대에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등산 인구가 늘어나면서 등산이 대중화되었고, 본격적인 암벽 등반과 스키 등산도 이루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스키 등산으로 비로봉까지 올랐고, 한국과 일본의 산악인들은 세존봉, 집선봉, 내만물상, 관음연봉 일대의 암벽을 경쟁적으로 올라 금강산은 일약 근대 등산 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 나무 스키

일제강점기 | 길이 210cm

조선총독부는 1910년이래로 20년까지 매년 시정 기념 관제사진엽서를 발행하였다. 해마다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엽서가 발행되었는데, 식민 통치로 인해 조선이 발전하였다는 주장을 내외에 선전하는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었다. 4주년 기념엽서의 주제는 금강산으로 금강산 만물상과 사자봉의 절경이 표현되어 있다.



### 피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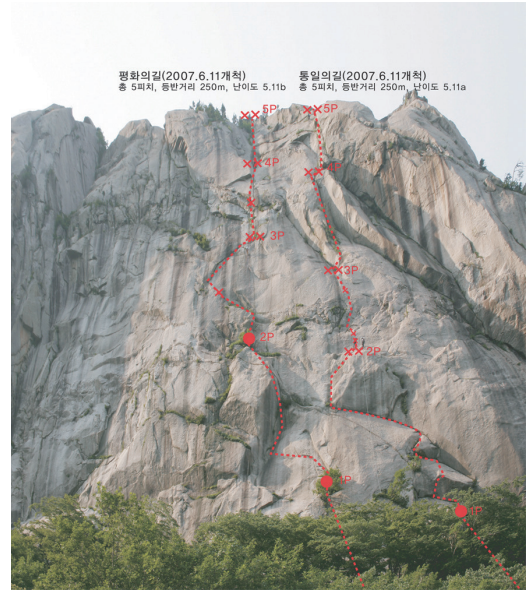
1930년대 | 길이 76.5cm, 헤드 길이 30cm

일본 삿보로 가도다 대장간의 몬타 나오마가 제작한 피켈이다.

### 3부 : 분단의 벽을 넘고 산에 오르다

3부는 현대 금강산 여행 내용을 담고 있다. 분단 이후, 멈췄던 금강산 관광이 1998년 다시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는 금강산 암벽·빙벽길도 열렸다. 2005년에는 서울시산악구조대가 주축이 되어 구룡폭 우측 120여 미터의 벽에 ‘아산길’과 ‘독립문길’을 개척했고, 2006년에는 전국산악구조대 금강산 합동등반으로 140여명이 참석하여 북측 산악구조대원에게 빙벽·설벽 등반 기술을 전수했다. 2007년 6월에는 남북합동으로 금강산 세존봉에 ‘평화의길’과, ‘통일의길’, 구룡대에 ‘대명길’루트를 개척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금강산에 다시 오르길 우리 모두는 희망한다. 2022년 기획전시 <언젠가는 금강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강산에 대한 울림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2007년 금강산 세존봉 - 평화의 길, 통일의 길 개척 루트도



2007년 금강산 세존봉 개척을 마치고





## 2022 박물관 기증자료

# 역사를 다시 만나는 법

글\_이명희 학예사

.....

누구에게는 작은 추억일 수 있는 물건이 중요한 역사 자료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오랜 이야기가 담긴 자료가 '지금'의 시간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되살아나게 되는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분명한 증거물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산악박물관에 기증된 산악 자료 중 대표적인 자료를 소개한다.

그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해보자.



### 키슬링 배낭

김중수 기증

1980년대 많이 사용된 키슬링 배낭의 가장 큰 장점은 100리터가 넘는 용량과 가로 폭이 넓어 짐을 넣고 꺼내기가 편리하다. 아쉬운 점은 면 소재로 되어있어 오염에 취약하고 강한 흡습성으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했다.

### 일본인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산

김진수 기증

일본 식물 유전학자 타케나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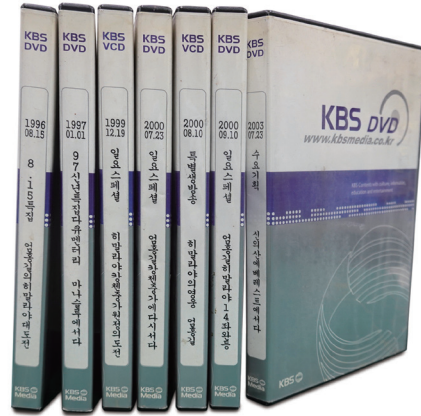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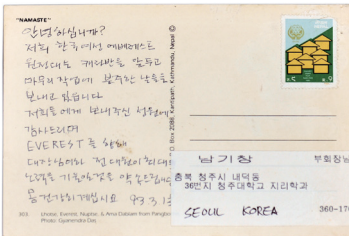
카나메(1903~1966)가 작성한 한국의 산맥, 백두산, 부전고원, 연화산, 금강산, 한라산, 관모연봉, 소장백산맥 등 관련 기록과 삽화로 구성된 도서 「반도의 산과 풍경」이다.



## 원정대가 남기창에게 보낸 엽서와 연하장

남기창 기증

‘93한국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 박영석 대원, 포스코 K2 원정대, 고상돈, 지현옥, 허영호 등 원정대는 충남산악연맹 남기창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와 다짐 등을 보내왔다.



## 히말라야 등반 영상자료

최재일 기증

1990-2000년대 KBS 방송 녹화 DVD이다.

## 우드피켈

남행수 기증

남행수가 1940년대 학술 등반 등에 사용한 우드 피켈이다. 1930년대 일본 삿보로 가도다 대장간의 몬타나오마가 제작한 피켈이다.



## 1969년 설악산 10동지 사고 당시 훈련에 사용한 로프

백경호 기증

1969년 설악산 10동지 사고 당시 훈련에 사용한 로프로 매몰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단서였고, 백경호가 당시 훈련에 참가한 오준보(24세, 연세대)에게 빌려주어 사용되었다는 기증자의 증언이다.



## 1985년 남극관측탐험계획서

홍석하 기증

1985년 한국 최초 남극탐험대 홍석하 대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계획서이다.



## 모래내 금강 크램폰

신유균 기증

1960년대 국내 모래내 금강에서 제작한 8발 크램폰이다.



## '90 빛나는 등정대의 페넨트

이석규 기증

'90 충남대전가셔브롬 원정대가 1990년 가셔브롬 I봉과 IV봉 원정을 기념하여 제작한 페넨트이다. 실제로는 가셔브롬 I봉과 III봉 등정을 시도하였고 I봉 등정에 성공하였다.



## 지게 배낭

박호남 기증

외부 프레임 배낭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지게 배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잡목이 많은 지형에서는 프레임이 나무에 걸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 산악스키와 폴

김옥배 기증

1940년대 나무로 만든 산악스키와 폴이다.



## 앤비 747 대형 스토브

선종환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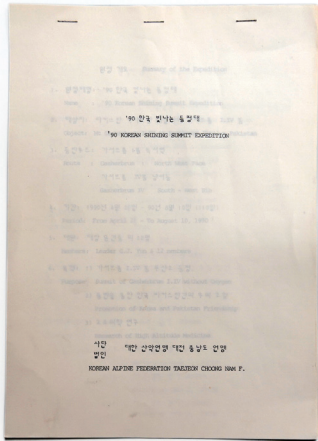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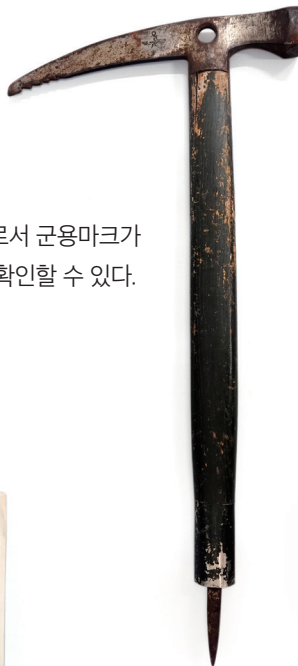
야외에서 이용하는 휴대용 가열기구이다. 70~80년대에 국내 제작, 독특한 연료통의 앤비 747 대형 버너의 특징은 자체 예열기, 유량계가 있고 불 조절 손잡이 길이가 길다. 연료통이 2배로 크며, 케이스에 로고가 음각되어 있다.



## 모래내 금강 제작 아이스 해머

윤영기 기증

모래내 금강에서 제작한 아이스 해머로서 군용마크가 각인되어 있어 군용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90 빛나는 등정대 원정계획서

차용석 기증

대한산악연맹 대전충남연맹의 90 빛나는 등정대 원정 계획서 초안이다.



## 비디오 영상 기록물

한성대 산악부 기증

'제1회 인공암벽 대회 영상', 영상자료원본. 스포츠 클라이밍협회가 주최했으며, 최초로 상금(400만 원)이 걸린 대회였다고 한다.



2018~2021 기증목록

기증자(단체)	기증수량(점)	기증내용
권성혁	8	대구경북산악연맹 자료, 산악회보, 기념품 등
권정아	3	2020년 기획전(숙설-속초의 설악) 출판작
김기섭	108	요세미티 엘 캐피탄 프리라이더 자유등반 및 노즈 스피드 등반 귀국 보고회, 볼트행어 등 산악 장비와 도서
故)김옥배	166	스키, 크램폰, 등산복 등 각종 산악 장비와 국내·일본 산악 관련 도서
김용배	5	12발 크램폰과 국내 제작 송림제화 등산화 등 산악 장비
김중수	1	1980년대 사용된 키슬링 대형 배낭
김진수	1	「반도의 산과 풍경」 일본 식물 유전학자가 삽화와 함께 우리나라 산을 기록한 도서
김진홍	18	1979년 하리산악회 설악산 등반 페넨트, 1986년 킬리만자로 등반 기념서, 배지, 각종 공로패 등
남기창	68	허영호, 지현옥, 이선호 외 다수 등반가 및 박영석 원정대, 청소년 오지탐사대 등 원정 단체가 보낸 엽서와 연하장
故)남행수	375	1940년대 학술대회 등반에 사용했던 우드피켈, 키슬링 배낭, 배지, 페넨트 등 각종 산악 자료
박경이	19	'91한국아마다블람 원정대 등정 보고서·기념 페넨트 등
박종철	1	2020년 기획전(숙설-속초의 설악) 출판작
박호남	1	외부 프레임 지게 배낭
故)백경호	125	설악산 10동지 사고 당시 사용 로프 및 다양한 산악 장비
서울대학교 문리대 OB산악회	15	1966년~1975년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 회의실 건물에 사용한 백계산장 현판(김정록 교수 씌), 서울대문리대산악회 40주년/60주년 보고서, 설피, 빙벽화 등 산악 장비
석채언	1	티메트 고화폐, 100스랑(srang)
선종환	1	독특한 연료통의 대형 버너
신유균	314	광복70주년 독도표식 재건립 기념 페넨트, 60년대 우정산악회의 인수봉 우정길, 하늘길, 노을길 암벽 초등반 사용 균용자일 등 다양한 산악 장비와 국내외 산악 관련 도서
신현균	10	1991 계우회 맥킨리원정대 사진과 등반시 사용한 부츠, 게이터 등 등반 장비
양명수	32	1980년 동국대 마나슬루등반대 사용 각종 장비와 등산복, 관련 서류
유성렬	2	석유스토브, NO.100, SWEDEN, 삼보상사 수입된 옵티머스 스토브와 80년대 K2 가죽 등산화
유태원	6	스키, 가죽 스키부츠, 크램폰, 스토브 등 1980년 마나슬루원정대 산악 장비
유현재	7	사람과산 보존판(4권 합본)/창간호, 77년 에베레스트 등산 사진집, 92년 낭가파르밧 원정 보고서 등 등반 자료
故)윤 광	40	한국산악,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탐방보고서, 산·77인 에세이 등 각종 출판물
윤건중	10	가셔브룸 정상 기록 사진과 등반에 사용한 등산 장비
윤경덕	2	도서「백두대간 여명의 별」, 「계룡산맥은 있다」
윤대효	52	2018년 부산합동 다올라기리 1봉 원정에 사용한 등산복과 장비류, 다올라기리 1봉 배경의 사진
윤영기	5	MK 균용 아이스 해머와 Almgrens 제조 신발에 덧붙여 사용하는 스케이트, 프랑스 시몽드 아이스 해머 등
윤정기	4	충남연맹(대한산악연맹), 1969년 국토종주 기념, 제3회 계룡산악제 배지와 산악활동 앨범
이건욱	2	설악산 안내 책자와 금강산 영문 안내 책자
이목근	70	박철암 자서전 출판기념회 리플릿과 등산로 표식기
이석규	52	'90 한국 빛나는 등정대 원정 자료 및 90 충남대전 가셔브룸 원정대 페넨트 등
선종환	1	독특한 연료통의 대형 버너
이영준	3	아시아 황금피켈상 피켈과 1952년 브라이트호른 동벽 등반 시 사용한 아이스 하켄 등
이치상	26	북극권 3만리 단독 탐험기「안나여 저게 코츠부의 불빛이다」, 「죽음의 지대」, 「북한산」 등 도서
故)이훈태	1	「리지등반」 한국의 리지 올 가이드 리지 등반 이론과 기술을 다룬 도서
조대행	2	'88한국 에베레스트-로체원정대 페넨트와 헬멧. 헬멧에는 조대행 장비에는 대부분 흰색 페인트로 표시

기증자(단체)	기증수량(점)	기증내용
조형규	45	1995년 에베레스트 남서벽-로체 / 1999 가셔브롬 II 및 2004 로체 원정대 등 원정 관련 서류·장비류, 로체 등정 확인서 등
(주)트렉스타	12	(주)트렉스타에서 제조한 등산화 시리즈(킹스타~서라운드105)
주형구	1	한국최초 산악잡지 「산악」, 경북학생산악연맹 제1권, 발행인 이효상
차용석	4	'90빛나는 등정대, 가셔브롬 원정계획서 초안과 사진기
최경환	15	크램폰, 빙벽화, 헬멧 등 등반 장비와 한국 제조 캡틴 스토브
최재일	53	국산 백록담 피켈, 등산 스틱, 랜턴 등 산악 장비와 '89 마산산악동지회 에베레스트 원정대 영상 자료 등
최중기	28	설악산 10동지 조난 사건 관련 서류, 대형 카라비너를 포함한 각종 장비
한성대산악부	9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적벽 클라이밍, 토이예니로 강의 등 영상 기록물
故)홍석하	116	1985년 남극관측탐험 계획서, 한국 최초 남극탐험 대장 기념패, 우드피켈, 크램폰, 배낭 등 산악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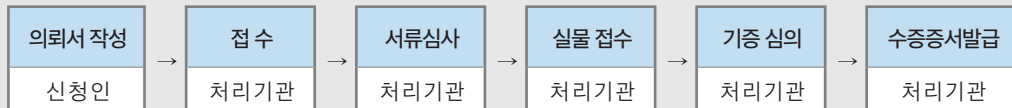
## 역사를 기증하세요!

국립산악박물관의 시작은 기증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산악문화는 다양한 역사와 자취를 남겼고, 그 자취가 남아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증 자료는 우리나라 산림·산악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 기증 대상

조선 시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림·산악 문화와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 유품, 기념품 등 역사 자료

### 기증 절차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국립산악박물관 학예연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립산악박물관 학예연구실 033-638-4453**





## 한국 석유스토브 컬렉션

# 야외 활동의 꽃이었던 스토브에 대한 추억

.....

야외 취사가 자유로웠던 시절, 스토브는 야외 활동가들의 로망이었다.  
작고 아무진 스토브는 강력한 화력으로 야외 활동에 필요한 따뜻함을 만들어주었다.  
전문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추억 속에도 스토브에 대한 기억은  
어떤 아련한 설렘으로 남아있다.  
2022년 입수한 석유스토브는 누구에게나 있을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스토브가 내뿜는 마법에 빠져보자.



국산 스토브 수집가 신성하 소장 컬렉션

올해 국립산악박물관은 국산 석유스토브(STOVE) 155점을 입수하였다. 국내 최다 스토브 수집가 신성 하씨가 40여 년간 모아온 국산 스토브 컬렉션 600여 점 중 일부이다. 국산 석유스토브는 1970년대에 생산되기 시작해 19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1990년대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기능과 디자인에서 수입 스토브에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던 국산 스토브의 우수성과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사료를 일부 소개한다.

버너(BURNER)라고 불렀던 스토브는 캠핑과 등산 등 야외 레저 활동에서 필수적인 취사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서양문물의 수입으로 석유를 사용한 남포등이 등장했고, 1937년 설악산 동계 등반과 1942년 백두산 등반에 스토브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광복 후 주둔한 미군을 통해 군용 휘발유 스토브가 전해졌고, 주로 외국산 스토브에 의존하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국산 스토브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1973년 5월 민간인 군용품 사용 금지

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산복과 등산장비 생산이 본격화된 것이다.

국산 스토브 1호는 1970년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산왕(山王) 스토브'로 알려져 있다. 이어 같은 해 태광금속에서 스웨덴의 명품 스토브 스베아(SVEA) 스토브를 닮은 '시나브로 340R'이 생산되었다. 1971년에 오스트리아산 '포에부스 625'를 모방한 '설악1호'가 생산되었다. 소규모 중소기업-현대정밀(성수동), 태광금속(구로), 동일금속(종로), 삼일사(구파발), 한신공업(부산), 제일금속(대구>부산), 태우공업(익산)-등에서 자사 상표와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여러 가지 명품 스토브가 생산되었다.

1970년대 정부의 수출 주도정책에 따라 스토브도 주요한 수출 품목에 들었고, 제일합섬, 금성, 대우, 코요롱, 현대, 한라, 선경, 국제상사 등과 같은 종합무역회사에서 수출한 스토브는 거의 대부분 영어 표기로 출시되었다. 1980년대까지 국산 스토브 생산업체는 30여 개 정도였으며 모델은 550여 가지에 이른다. 스베아(SVEA), 프리무스(PRIMUS), 읍


 올해 국립산악박물관이 입수한 국산 스토브 주요 모델

사진 번호	모델명	특이 사항
1	Ala-Sin	중등 수출용으로서 아랍글자가 각인
2	Ann by 007	사각 대형 가스렌지형 석유 스토브
3	대림 105	알콜접시와 가열 토치가 2개
4	Covin 투버너	사각 2버너
5	Covin 199 R형	R형 화력 조절기
6	Cosmos 701	구 소련 우주선 모양
7	Doo Bong DBS101	R&S 기화기, 동으로 된 화구링, 바람막이 특이, 기화기 받침대 및 삼발 S형스틸 외캡, 스틸바람막이
8	Giant	스테인리스 고정불판, 바람막이 일체형, 도넛형 연료통, 연료통 밑 접이식 다리
9	Manasulu 77A	동 외캡, 2쪽 철 바람막이, 하늘색 케이스
10	Lion 군용2버너	콜맨 523형
11	Lion M77-700	콜맨 576형
12	Lion G101	스베아 123형
13	Lion HB707	주물 불판, 대형기화기
14	Lucky	소형 불판, 튜브형 기화기



티무스(OPTIMUS), 콜맨(COLEMAN) 같은 외국 명품들을 모방한 모델들도 있지만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고유 모델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레저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자, 1978년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고 산불방지운동과 같은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었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야외취사금지 유예기간을 거쳐 1990년 1월부터 야외취사가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90년대에는 산에서 인화물질 휴대금

지 조치가 내려져 석유스토브 산업은 사양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수입 가스스토브 시대를 지나 국산 가스스토브가 생산되었고 우리나라 브랜드 코베아는 세계적인 명품 가스스토브를 생산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국산 스토브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나머지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자랑스러운 국산 스토브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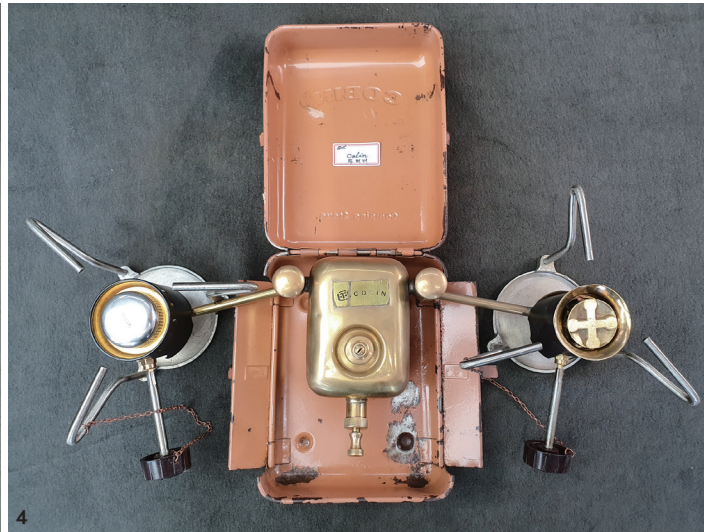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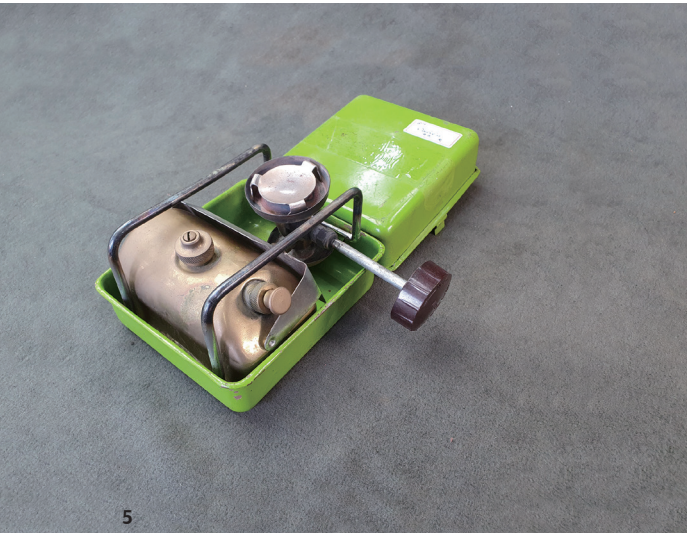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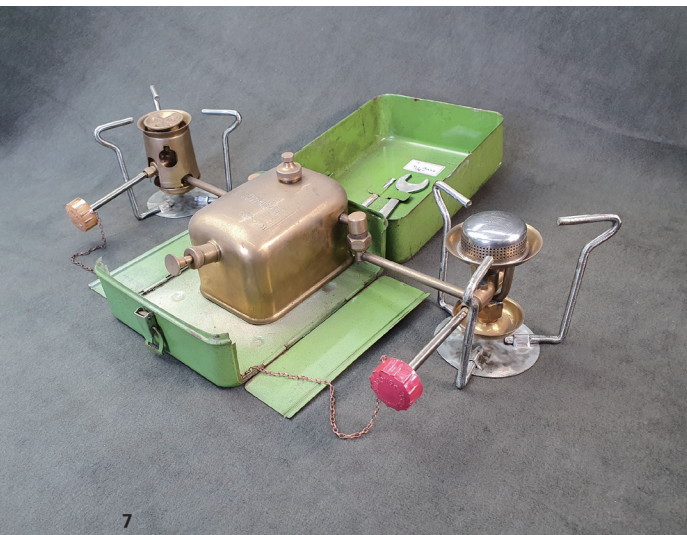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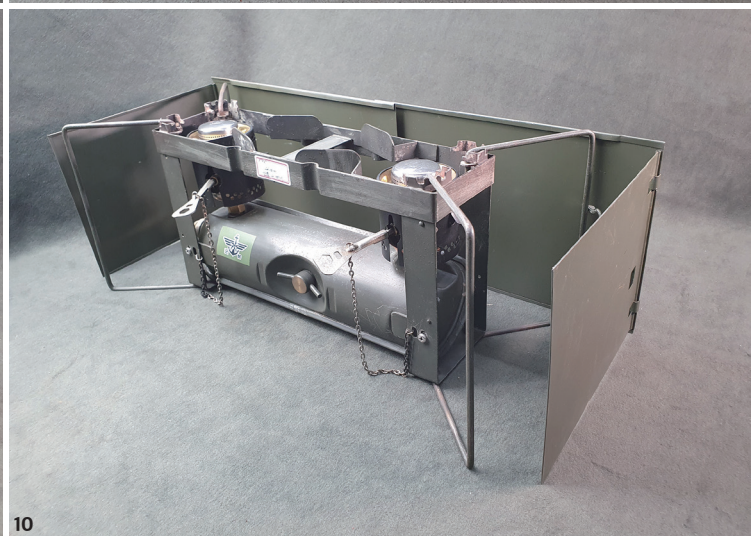
7



8



9



10







#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숲길

## 「동서트레일」 제55구간 조성사업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849킬로미터의 동서트레일이 2026년까지 조성된다. 첫 착수 구간은 마지막 제55구간인 울진으로 우리금융그룹이 후원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지난 9월 조성을 시작했다.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숲길, 동서트레일이 산림청과 5개 시도에 의해 조성된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에 이르는 849킬로미터의 숲길로, 2026년까지 국비 43억 원 등 총사업비 604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계획이다. 동서트레일은 총 55구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1개 구간의 평균 거리는 15킬로미터로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이다. 거점 마을 90개와 야영장 43개 등 구간마다 이용객들이 산골 마을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첫 착수 구간은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끝인 경북 울진군의 제55구간(울진 망양정~하원리 중섬교 16.7킬로미터)으로서 올해 9월 울진군 망양정에서 첫 삽을 떴다. 이 구간을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울진군 일대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보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길과 점·선·면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연결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55구간 조성 사업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는데 우리금융그룹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일환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기부한 8억 원이 투입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5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울진 지역을 위해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쾌척했다.

산림청은 동서트레일 추진 배경으로 건강·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등산과 트레킹(걸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과 트레킹(걸기)을 하는 인구가 71퍼센트(2018년)에서 77퍼센트(2021년)로 6퍼센트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블로그와 카페의 관련 게시글 5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산행, 정상, 오르다’ 등 정상 지향적인 것에서 ‘산책, 카페, 둘레길’ 등 휴식과 관련된 단어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트레일」 홍보 노선도





## 속초 팔색조

# 속초, 바다만 가 봤니?

‘속초 팔색조’는 설악산자락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구성체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을 포함하여 속초시립박물관, 바우지움조각미술관, 얼라이브하트&다이나믹메이츠, 테디베어팜, 테라크랩팜, 해피아울하우스가 ‘속초 팔색조’이다. 속초를 여행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어 알찬 여행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속초에서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한다.

###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의 역사와 문화, 피난민 정착으로 생긴 실향민문화, 해동성국 발해의 유적과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속초의 인문환경부터 과거 속초가 걸어온 문화, 어촌문화와 실향민문화, 조상들의 일생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체험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전시 등 3개의 전시실이 있고, 박물관 소장품 DB 자료 검색, 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디지털아카이브 미디어월이 있다. 또한 실향민의 생활상과 향수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향민문화촌, 깨어나는 고구려의 후예, 해동성국 발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을 경험하는 발해역사관, 관람객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장이 있다.



- 주소 : 24859 강원도 속초시 신흥2길 16 (노학동 736-1)
- 문의 및 홈페이지 : 033) 639-2972~8 [www.sokchomuse.go.kr](http://www.sokchomuse.go.kr)





## 바우지움조각미술관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현대 조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조각가 김명숙의 사립 미술관이다. 또한 지역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다. 조각가 김명숙의 작품 및 한국 근·현대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각미술관 바우지움은 총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미술관 야외에는 물의 정원, 돌의 정원, 잔디정원, 테라코타 정원, 숲의 정원 등 다섯 가지 개념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연, 건축, 조각이 어우러진 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가로 20m x 세로 20m의 수(水)공간의 거대한 자연 캔버스로 그려진 설악산 울산바위의 절경을 만나볼 수 있다.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온천 3길 37
- 문의 및 홈페이지 : 033) 632-6632 www.bauzium.co.kr



## 얼라이브하트&다이나믹메이즈

얼라이브하트&다이나믹메이즈는 속초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이다. 1층의 얼라이브하트는 착시 작품 속에서 무제한 촬영이 가능한 버라이어티 착시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샷을 찍을 수 있어서 재미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다. 2층의 다이나믹메이즈는 14가지 익사iting 로드 미션을 팀원 간 협동하여 체험하는 해저 컨셉의 미로 탈출 프로그램이다. 오감을 자극하는 새로움을 원한다면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신기한 트릭아트와 스릴 넘치는 도전 프로그램은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88 (노학동 1069-2)
- 문의 : 얼라이브하트 033) 633-2004 | 다이나믹메이즈 033) 633-2004





## 테디베어팜

테디베어팜은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탄생된 100% 핸드메이드 테디베어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전 세계 유명한 관광명소와 그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동화에서만 보고 상상하던 여러 주인공들을 테디베어로 표현하여 세계 문화를 보다 즐겁고 유쾌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곰 인형은 누구에게나 동심을 자극하는 특별함이 있는데, 테디베어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시 가운데는 테디베어의 탄생 일화를 비롯해 동화 속 인물들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것도 있어 흥미롭다. 둘이 가거나 여럿이 함께 가도 좋지만, 혼자라도 충분히 '테디베어'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울산바위길 3번지
- 문의 및 홈페이지 : 033) 636-3680 www.teddybear.net



## 테라크랩팜



테라크랩팜은 우리나라 토종인 '도둑게'를 비롯하여, 바다와 육지에 사는 '게' 생태체험관으로 게를 자세히 관찰하고 살아있는 먹이 체험, 만져도 보며 게의 생태를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약 500여 평의 규모에 2011년부터 게를 연구하여 현재 치계를 포함 10만 마리의 게가 살고 있다. 또한 황토를 직접 밟을 수 있는 황토 공방과 야외 학습장, 포토존까지 조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국내 유일 게 생태학습장이다. 황토방에서는 황토를 밟아 만든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직접 황토공예체험도 할 수 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며 배우고 노는 공간, 테라크랩팜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학사평2길 16 (노학동 1073-53)
- 문의 및 홈페이지 : 033) 636-6363 www.terracrab.com

## 해피아울하우스

해피아울하우스는 총 5개의 전시관이 있다. 1관과 4관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5,000여 점의 수집품이 전시되어 있고, 2관 3관 5관에는 패브릭아티스트 정희옥 작가의 작품들이 이야기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 해피아울하우스는 부엉이를 통해 꿈을 이룬 곳이다. 부엉이는 지혜와 부를 상징하며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새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양한 부엉이의 모습들을 작품으로 만나면서 오래전 잊었던 꿈을 다시 만나길 바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부엉이 작품과 함께 그 소망을 더 키워가면 어떨까. 해피아울하우스는 아마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것이다.

- 주소 : 24867 강원도 속초시 바람꽃마을길 118
- 문의 : 033) 638-8475





# 박물관 소식

## 강원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국립산악박물관 방문

- 금강산 기획전시 등 산악 역사에 큰 관심

11월 14일(월) 강원도시군의회 의장단 일행 50여 명이 국립산악박물관을 방문했다. 의장단 일행은 11월 14~15일, 이틀간 속초에서 열린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월례회의 공식 일정 중 유일하게 국립산악박물관을 관내 시설 견학 코스로 방문했다.

의장단은 전시실과 체험실을 두루 관람하였으며, 제2전시실(산악인물실)에서는 고인이 된 유명 산악인의 전시를 보며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특히, 제9대 전반기 협의회장 김일용 고성군의회 의장은 현재 전시 중인 '언젠가는 금강산' 기획전에 고성군 금강산 권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 국립산악박물관, 강원 유니크 베뉴 선정

- 복합문화 공간으로 강원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

국립산악박물관은 11월 21일(월) 강원도관광재단이 공모한 '강원 유니크 베뉴'에 선정되었다.

강원 유니크 베뉴란, 강원도관광재단에서 강원도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과 독특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장소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소의 차별성, 접근성, 마케팅 등과 및 주변 인프라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된 10곳 중 속초에서는 국립산악박물관과 속초시립박물관이 포함되었다.

## 설악산국립공원 해설사, 국립산악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견학

-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가능성 검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의 첫 단체방문으로서 벤치마킹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물관에서는 기획전 <언젠가는 금강산>과 상설전시대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그동안 박물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산악문화·역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교구들을 설명했다. 특히, 설악산을 주제로 한 만들기 프로그램과 박물관 4층 전망대에서 한눈에 보이는 설악산 조망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박물관과 설악산국립공원의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장단 방문



국공 박물관 견학



## 설악문화제에서 빛난 설악산 팝업 카드

### - 제57회 설악문화제에서 국립산악박물관 설악산 콘텐츠 인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산악박물관은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속초 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된 제57회 설악문화제에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체험거리는 설악산 대청봉 능선과 토왕성폭포,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한 팝업카드 만들기로서 설악문화제와 관련성이 높아 인기리에 진행되었다.

## 국립산악박물관, 역사적 산악유물 컬렉션 1800여점 기증받아

### - 산악계 대부 이인정 회장과 아들 이상현씨 동시 기증

국립산악박물관은 지난 11월 9일(수) 아시아산악연맹 이인정 회장 부자로부터 산악장비 1,800여점을 기증받았다.

이인정 회장은 국내 산악계에서 대표적인 산악유물 수집가이며 이번 기증 유물은 1990년대 초 국내 최초로 산악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산악박물관과 산악도서관을 운영하며 수집한 것이며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당시 기탁했다가 이번에 기증으로 전환하였다. 히말라야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박영석, 김창호, 고미영 대장 등이 사용했던 등반 장비 등 산악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대거 산악박물관으로 오게 되었다.

이인정 회장은 “국립산악박물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등산 역사 전승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14좌 완등의 영광, 국립산악박물관의 품에 안기다

### - 세계 최초 장애인 히말라야 14좌 완등,故 '김홍빈' 대장

국립산악박물관은 지난 10월 19일(수),故 김홍빈 대장의 유품을 기증받았다.

故 김홍빈 대장은 2021년 7월 18일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4좌를 모두 오른 후, 하산 도중 크레바스에 추락하여 귀환하지 못했다. 김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등반 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잃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희망만들기 원정대'란 타이틀을 걸고 고산등반을 해왔다.

故 김 대장 부인인 방영은(사단법인 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상임이사)는 김 대장의 마지막 원정인 브로드피크(8,051m) 등반에 사용한 장비 등 유품 11점을 “국립산악박물관에서故 김홍빈 대장을 기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며 기증했다.

## 박물관 개관시간 변경

1월~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박물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람과 체험 마감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이며, 관람 마감시간은 오후 6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으로 문의(033-638-4459)하거나, 홈페이지(<http://nmm.forest.go.kr>) 참조.



이인정 회장 부자 기증



故 김홍빈대장 유품 기증

# 국립산악박물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청이 건립한 국립 산악박물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산악박물관으로 세계적 산악 강국인 우리나라의 등반 역사·문화 조명을 통해 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악 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산악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상설 전시

**제1전시실 - 근대등반의 역사** 등산장비의 변천과 산악 단체의 태동 및 해외원정에 대하여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전시실 - 산악인물실** 한국 산악사를 빛낸 인물들의 발자취와 산을 오르는 인생철학을 전시하여 산악인들의 삶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제3전시실 - 산악문화실**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산을 통해 한국 산악문화의 기원과 삶 속에 녹아 있는 우리 산의 인상과 가치를 되새깁니다.

### 기획 전시

225㎡의 전시공간으로 자연, 인문, 예술, 문화 등 산을 테마로 한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공간입니다.



**산악체험실** 남녀노소 누구나 3m 이내의 실내 암벽을 장비 없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고산체험실** 5000m/3000m 고도의 저산소 저온도 고산 환경 속에서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산악교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율활동을 통해 산악문화, 등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

**영원한 도전** 국립산악박물관 1층과 2층에 걸쳐 설치된 조형물로 '극한의 정상을 향한 인간의 열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암벽등반, 빙벽등반, 혼합등반 모습을 역동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증자의 벽** 등산 관련 유물에 대한 기증과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수증증서 발급 후 기증 명패 제작과 소정의 기념품 증정 및 박물관 행사 초청장과 자료 등을 발송해 드립니다.

**영상실** 66석 규모의 첨단 영상 음향 장비를 갖춘 시설로 산악 다큐멘터리, 산악영화 등 영상물을 상영합니다. 강연 및 학술회의의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트랙맨**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머신으로, 안전센서는 물론 속도와 각조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054 대표전화 033-638-4459

홈페이지 <https://nmm.forest.go.kr>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건전한 등산 문화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사업개요

숲길 운영·관리 | 등산·트레킹 체험 | 등산·트레킹 조사·연구 | 공익활동 지원 및 산악사고 예방 | 국제협력 및 홍보 | 산악문화 전시·체험 프로그램 제공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등산교육 제공 | 숲길전문가 양성·교육

## 사업 추진체계

미션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

핵심가치

혁신 · 협력 · 공익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등산·트레킹 서비스 대표 기관

경영목표

숲길이용객  
300만 명 달성  
(2030)

고객만족도  
(PCSI)  
"우수" 등급  
달성

ESG  
경영체제  
강화

전략목표

고객지향적 숲길  
운영·관리 체계화

숲길·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고객만족 전시·교육  
서비스 확대

조직 혁신 및  
경영 효율화

전략과제

- 국가·지역 숲길 통합 관리체계 구축
- 국가숲길의 글로벌 브랜드화
- 숲길 고객만족 기반 구축

- 숲길·산림레포츠 공공데이터 활성화
- 숲길 ESG 적용 기반 구축
-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

- 국립산악박물관과 전시·체험 서비스 강화
- 국립등산학교 전문 등산교육 서비스 강화
- 신설 등산학교 운영 기반 마련

- 조직·경영 혁신 기반 마련
- 국민소통을 통한 기관 인지도 제고
- 시설 및 안전관리, 정보보안 체계 구축



운영

통합되고 표준화된  
운영체계 구축

## 숲길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삶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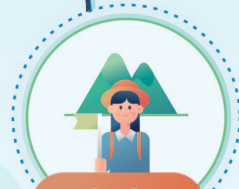
# 국가 숲길

NATIONAL TR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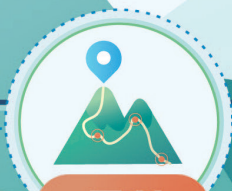
가치

숲길보호와  
산림생태적 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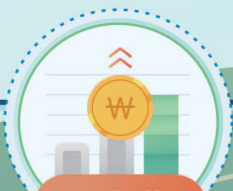
서비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서비스 제공



문화

올바른 걷는 길  
모델 제시



경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가숲길 지정현황

